

육아정책 소식

4월 3주 이후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운영 계획

교육부는 4월 3주부터 유·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를 활용하여 주 2회 실시하던 선제검사를 주 1회 원칙으로 하되,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7일 내 3회 실시하던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선제검사 1회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정 배경은 3월 4주부터 학생 확진자가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고, 확진자의 대부분이 기침·발열·오한 등 유증상자였으며, 2월 4주부터 시작된 선제검사로 학교·가정의 방역 피로도가 누적된 점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역당국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

〈 4월 유·초·중등 학생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화 비교표 〉

적용시기	~4.17.	4.18. ~ 4.30.
선제검사(권고)	☑ 주 2회	☑ 주 1회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전체” <hr/> ☑ 3회(선제검사 2회 포함) ※ 고위험 기저질환자: 3회 7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2회 ※ 그 외 학생: 3회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회	☑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hr/> ☑ 2회(선제검사 1회 포함) ※ 고위험 기저질환자: 2회 5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1회 ※ 유증상자: 2회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회

5월 이후부터는 정부의 방역·의료 체계 변경 내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학교 방역지침 등 대응체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농산어촌 방방곡곡, 안전체험교육이 찾아간다

교육부는 소방청,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여,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이하 안전체험교육)’을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42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안전체험교육’은 환경적·지리적 여건으로 안전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화재안전, 지진체험 등이 가능한 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하여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안전전문가 학교를 찾아가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체험교육을 하며,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교에는 교통안전교육도 추가로 실시한다.

‘안전체험교육’은 소방청과 협업하여 소방안전체험으로 2017년부터 시작되었고,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이 2018년에 추가되어 현재까지 지속해서 운영 중인 사업이다. 올해 참여 학교 수 420개교이며, 지난해 대비 142개교가 증가하였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는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개정(2020. 3.1. 시행)에 따라, 유치원 교무·행정 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유치원 나이스, 2023년 3월 개통 예정)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6월 21일(화)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유아의 주소 정보 연계, 건강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을 위한 항목들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규정하였다.

〈 유아교육법 개정 내용(2020.3.1. 시행) 〉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아교육 비용 지원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등을 위해 다른 부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을 확대하고, 명확히 함.
- 유아교육 비용 지원을 위한 정보만 공동으로 활용하였다면, 이번 개정으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등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이 추가함.
-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사무 처리 시 교육감, 원장, 설립·경영자 등의 업무주체별 권한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유아의 교육적 성장·발달과정을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첫 만남이용권(출생아 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 개시

보건복지부는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새로이 도입된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사전신청 기간(2022. 1. 3. ~ 3. 31.)동안 현장 및 온라인으로 접수된 총 48,563건(2022. 3. 31. 기준)에 대해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첫만남이용권은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인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2022년 출생 아동부터 지급되고,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200만 원 바우처, 일일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아동 양육시설 등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에 현금으로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바우처(카드적립금)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시범 운영 실시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서울대학교병원(서울), 인천의료원(인천), 울산대학교병원(울산), 조선대학교병원(광주), 용인세브란스병원(경기), 충북대학교병원(충북), 전북대학교병원(전북), 창원한마음병원(경남) 총 8개 의료기관이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들은 지역 내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모든 의료기관에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자문 등을 수행하며 의료기관들을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시범사업은 서울,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전북, 경남 등 8개 시·도에서 우선 시작하며, 올 연말까지 성과를 평가하여 17개 시·도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동학대 학대의심 신고, 조사·결정, 피해아동 지원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7에 근거하여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현재 전국에 285개 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광역 전담의료기관’과 ‘지역 전담의료기관’으로 나누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업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다가치 보육, 소규모 어린이집 상생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5월 30일, 서울시 용산구 ‘동자 아트홀’에서 ‘2022년 다가치 보육 어린이집 협력사업’발대식을 개최하였다.

‘다가치 보육 어린이집 협력사업’은 소규모 어린이집 4~5개를 유형별(가정, 민간, 혼합, 국공립 거점)로 하나의 그룹으로 구성하여, 공동(공통, 선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새로운 어린이집 협력모델이다.

〈어린이집 공동(공통, 선택) 프로그램〉

구분	공동 사업	선택 사업
운영관리	공동 원아 모집, 교재교구 공유	공동급식, 물품 공동 구매(대여) 차량(통학용, 행사용) 공동 운영 등
보육과정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포함) 공동 편성 및 운영	공동 야간연장보육(거점형, 협력형 등) 현장학습 행사 공동 운영
교사지원	교사 교육, 힐링 프로그램 공동 운영	교사 동아리, 동료교사 멘토링 등
부모지원	부모교육 및 공동행사 운영	지역사회연계

이번 사업은 저출생 현상 장기화로 인한 영유아 감소와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어린이집 폐원, 정원충족률 저하 문제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것이다.

2022년 ‘다가치 보육 어린이집 협력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은, 오는 11월까지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과정·재무회계 컨설팅 및 평가지표 교육 등의 지원을 받으며, 어린이집(그룹)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게 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3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정기관을 대통령령에 명시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등”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 한국보육진흥원장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요건 중 보육업무 5년 이상 종사 경력 등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었다. (안 제16조의2)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 사업장의 의무이행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사업장 보육수요를 확인할 때 정확성을 제고할수 있게 되었다. (안 제26조의3제2항)

4월부터, 만 7세 아동도 아동수당 받아요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에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3,106명이며,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진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만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만 7세 아동도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하여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만 6세까지 아동수당 수령 이후 지급 중단된 만 7세 아동의 경우,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년 9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 왔다

100회 어린이날, “우리는 모두 어린이”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5월 4일, 오후 2시, 포시즌스 호텔에서 「2022년 제100회 어린이날 기념식」을 진행하였다.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 굿네이버스 김웅철 사무총장, 한국아동복지협회 신정찬 회장,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 등 주요 아동단체 기관장들과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및 가족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어린이날 기념식은 유공자와 그 가족을 초청하는 작은 기념식 형태로 운영하였으나, 올해에는 주요 아동단체 대표들을 초청하여,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규모로 개최하였고, 온라인 가상현실 플랫폼 '온라인놀이터(게더타운)'를 통해

생중계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아동의 실제적 권리에 대한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생후 30~41개월 영유아구강검진 확대 시행

보건복지부는 2022년 6월 30일부터 영유아 구강검진을 현행 '3회'에서 '4회(생후 30~41개월 추가)'로 확대하고 구강검진의 판정기준과 결과통보서 서식 등을 개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생후 30~41개월 영유아의 구강발달 단계가 유치열(幼齒列)이 완성되는 시기로 치아우식증 등의 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이번에 시행하게 되었다.

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 상의 검진결과 판정기준을 보호자가 영유아 구강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개선하고,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건강 신호등(안전, 주의, 위험)과 치아우식 위험도(3단계: 고·중·저위험)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등 검진 결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서식 등도 개선하였다.

이번에 추가되는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은 2022년 6월 30일에 생후 30~41개월이 되는 2019년 12월 30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이다.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자는 매월 초 전자문서로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하거나, 건강검진표 미열람 시 매월 말 우편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여 구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가족센터, 학령기 다문화자녀 기초학습지원 지원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진로를 지원하는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기초학력을 제고하기 위해 90개 가족센터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후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습을 지원하며, 학업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78개 가족센터에서 전문상담을 통해 학업·진로상담을 연계한다.

올해 3월부터 5~7세 아동을 대상으로 다배움 사업을 시작한 조금량 연천군 가족센터장은 수업에 만족한 학부모들의 참여 소감을 공유하고, 농촌지역이라는 지역 특성을 감안해 거주 지역 근처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재 운영상황과 향

후 사업 확대 시 초등학교와 협력하거나 주말수업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대상자를 모집 중인 가족센터 센터장들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수업 개발과 부모교육과 병행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가족친화인증으로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여성가족부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가족친화인증 참여 신청을 받는다. 가족친화인증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에서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순회설명회와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여 인증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자체점검 서비스 및 자문(컨설팅) 제공, 법령위반 점검, 민원·언론 점검 등 사후 지원 및 관리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2008년 도입된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도,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조달계약 등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심사 시 우대 등 239개의 다양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시행 첫 해 14개였던 인증기업은 일·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에 대한 사회일반과 기업의 인식이 제고되면서 '21년 말 4,918개로 증가하였다.

자녀 맞돌봄 문화 확산으로 남성 육아휴직, 꾸준한 증가 추세

고용노동부는 자녀의 맞돌봄 문화 확산으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9,041명으로 2020년(27,423명)보다 5.9%(1,618명) 증가했다. '22년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7,993명으로 전년동기(6,359명) 대비 +25.6%로 크게 증가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및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월 통상임금 50% → 80%) 등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자녀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면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은 9.3개월로 전년 대비 0.4개월 늘어났다. 여성 근로자는 9.4개월로 전년(9.1개월) 대비 0.3개월, 남성 근로자는 8.5개월로 전년(7.7개월) 대비 0.8개월이 증가했으며, 상대적으로 남성 근로자들의 사용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 워킹맘&워킹대디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운영

근로복지공단은 23일 부모교육 전문강사 31명을 위촉하고 일하는 부모가 겪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을 지원하는「워킹맘&워킹대디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모교육 전문강사는 보육현장의 전문가인 직장어린이집원장 중 희망자를 모집해 양성교육 이수, 현장실행 및 만족도 조사 등 1년의 과정을 거쳐 선발된다. 공단은 현재까지 부모교육 전문강사 372명을 양성하여, 기업 및 직장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부모에 대한 양육코칭을 실시하였다.

「워킹맘&워킹대디 지원프로그램」은 2015년 연세대 등과 생애주기별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기업과 직장어린이집에 보급되었으며,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수강한 일하는 부모 14,400명으로부터 양육 스트레스 감소, 부모 역할 만족도 증가 등의 효과를 인정받았다.

올해는 그동안 운영하던 그룹 활동과 더불어 개별신청 과정인 ‘부모교육프로그램 특별과정’을 신설하여 영유아 부모 100명(영아 50명, 유아 50명)을 지원한다.

특별과정은 영유아 발달특성에 따라 영아(0~2세)부모, 유아(만3세~만5세)부모로 나누어 6월부터 9월까지 비대면으로 운영되며, 보육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실시간 화상 워크숍 신설,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오픈 채팅창 운영으로 워킹맘, 워킹대디의 참여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영유아 자녀 부모는 5월 31일까지 공단 홈페이지 또는 QR 코드를 통해서 구체적 모집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을 할 수 있다.